

산업안전보건 선진화로 가는 길

이제 대망의 새천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多事多難했던 격동의 천년을 마감하고 새로운 도전과 회

망으로 가득찬 새천년을 맞이하여 지난 세월을 돌이켜 보면 우리나라 전체 국민 모두가 하나가 되어 경제적 번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진해 왔다. 한국전쟁이후 경제체계의 붕괴는 물론 삶의 터전마저 상실된 참담한 현실에서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울 만큼 놀라운 경제발전을 누리게 된 데에는 그간 근로자와 기업주 그리고 정부의 각고의 노력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경제의 압축성장과정에서 비약적인 성장발전을 실현하였지만, 한편 부작용도 많이 노출되었다. 특히 산업재해로 사망하거나 고통받는 근로자와 가족, 이로인한 경제, 사회적 손실은 경제 성장의 그늘속에 사회적 관심을 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었다.

오늘날 산업안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중차대한 문제이다. 근래들어 우리나라의 산업재해율이 상당히 하락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사망, 중증장애 등 산업재해의 강도측면에서는 여전히 높은 재해율을 보이는 등 선진국의 산업안전보건관리 수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미 98년 한해만 하더라도 산업재해 50,000건에 7조2천억원이라는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였다.

최근들어 경영계는 그 누구보다 산업안전보건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쾌적하고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통하여 선진화된 산업안전보건 분위기를 정착시키는 노력은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뛰어 넘어 가정의 행복을 가꾸고 기업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원동력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IMF이후에 다소 안전보건관리가 축소된 경향을 보여 주었다. 산업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구조조정 속에 산업안전보건관리인력이 많이 축소되고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규제 완화정책기조하에서도 산업안전보건분야의 법령이 대폭 정비되는 등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업과 정부의 관심이 다소 위축된 측면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 들어서는 경기의 회복속도가 가시화되면서 경제 체제가 안정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새천년을 맞아 이제는 기업 경영활동에서도 무엇보다 인간존엄의 기본적인 가치를 보장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핵심 전략으로 대두될 것이다. 산업현장에서 이러한 인간존엄의 기본권 확립은 산업안전보건의 선진화를 통해서만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것이 우리 경영인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에 새천년을 맞이하여 경영계는 산업안전보건의 선진화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사·정 및 안전보건 관계자에게 다음과 같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첫째 정부는 자율적인 안전보건시스템이 정착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분야에서는 노사대립보다 노사화합의 문화가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 규제 수준은 상당히 높아 선진국과 큰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노사의 자율적인 안전보건시스템이 아직도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어 정부의 감시와 규제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는 대기업을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아직도 산업재해의 가장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창성

중소영세 사업장에 대한 지원에 보다 많은 관심을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둘째 안전 관련 법체계의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현재 정부의 안전보건관련 규정은 6개부처에 걸쳐 16개법령으로 산재해 있다. 이 처럼 산재되어 있는 법령은 복잡하고 일관성이 미흡하여 정부정책의 신뢰성을 저하시키고 기업에게 형식적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양상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특히 동일한 안전조치사항에 대해서도 각종 중복 감사, 보고 등으로 사업장의 인적, 물적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경영계에서는 사업장 안전관리 기본법의 제정으로 현재 난립되어 있는 각 부처의 안전보건법령을 통일시켜 일관되고 효율적인 규제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셋째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더 한층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최근 들어 근로자의 안전의식이 많이 향상된 것은 사실이나 아직도 만족할 만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이는 산업재해 특히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가 단순반복 재래형으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사실에서 쉽게 확인되고 있다.

그로자 스스로의 안전의식제고는 산업안전보건 선진화를 위해서 가장 우선적이고 핵심적으로 보강되어야 한다. 아무리 안전설비가 선진화되고 법령이 완벽하게 마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안전의식이 결여되어 있다면 산업재해예방 및 근로자 건강 보호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을 것이다.

넷째 안전보건관계자는 보다 전문적인 지식과 책임감으로 무장되어야 한다. 최근 들어 신기술이 발달하고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면서 신종 직업병이 출현하는 등 산업재해의 유형도 선진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산업안전보건관리에 있어서도 경제 구조 변화에 부합하는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안전보건관계자들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이라는 인식을 갖고 사업장에서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안전보건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선진 안전기술의 개발 및 산업재해 방지를 위하여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 경영계 역시 산업 안전에 대한 투자를 더욱 확대시켜야 하겠다. 이미 경영계는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가 경제적 비용이 아니라 근로자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산업재해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줄이는 수익성투자라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어 가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산업안전보건분야에 대한 일반 국민의 관심이 매우 높고 대외 경제활동에도 엄청난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대형 산업재해가 발생된 기업은 국내외 경영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분야의 관심과 투자없이는 더 이상 기업의 경쟁력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새천년을 시작하는 2000년도에는 안전보건관리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영환경에서도 전례없는 변화가 다가올 것으로 예측된다. 이제 노사는 물론 정부 그리고 안전보건관계자들은 국경없는 경제 전쟁시대를 맞아 새로운 변화와 도전의 거센 물결속에서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는 노력과 혁신으로 새로운 밀레니엄시대를 선도해나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새천년을 시작하는 2000년도에는 노사는 물론 정부 그리고 안전보건관계자들은 국경없는 경제 전쟁시대를 맞아 새로운 변화와 도전의 거센 물결속에서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는 노력과 혁신으로 새로운 밀레니엄시대를 선도해나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